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원/엔 환율 900원대 붕괴
- 미국 또다시 금리 인상, 연방기금금리 4.0%

경영 노트

- 글로벌기업의 경쟁자 수읽기
: 전략적 상호의존성하의 경쟁

정치 현안

- 日, 강경우익 개각

사회 트렌드

- 한국인 남아선호도 세계 5위
- 디자이어 갭(Desire Gap)

저널 브리프

- 지역주의 확산과 아시아 공동통화 도입 전망

洗心錄

-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 원/엔 환율 900원대 붕괴

- (현황) 2004년 말까지 1,000원대를 상회하던 원/엔 환율은 2005년에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1월 2일 900원대가 붕괴된 893.2원을 기록
 - 11월 2일 현재 달러화에 대해 엔화는 전년 말 대비 12.19% 평가절하된 반면 원화는 0.42% 평가절하에 그쳐 원/엔 환율은 894.2원을 기록
- (원인) 엔/달러 환율이 상승한 만큼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은 작았기 때문
 - 일본은 제로 금리 유지,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 회복세, 무역수지 흑자폭 지속 축소 등으로 달러화에 대해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원화는 10월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지분 매각으로 달러 공급이 증가하여 美 달러에 대해 상대적인 강세 유지
- (영향)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과 경쟁이 심한 기업들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 특히 국내 주력 수출업종인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이 일본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원/엔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수출에 악영향이 예상

□ 미국 또다시 금리 인상, 연방기금금리 4.0%

- (현황)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2004년 6월 이후 금리를 0.25%p씩 12번 인상하여 연방기금금리가 1년 5개월 만에 1%에서 4%로 상승
- (원인) 미 정책당국은 잇단 금리 인상에도 높은 경제성장률과 물가불안 등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여 경기 조절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 미국 경제는 3.5% 안팎의 추세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 및 임금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상존
- (영향) 미국 연방기금금리가 4%까지 상승하여 우리나라 콜금리보다 0.5%p 더 높아지면서 한-미 금리 인상 여부가 관심사로 대두
 - 일각에서는 한-미간 정책금리의 차이가 커지면서 한국에서 자본유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콜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금리가 한국이 미국보다 0.5%p 정도 높으며, 국내 경기 회복력이 아직 미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금리 인상에 반대

□ 글로벌 기업의 경쟁자 수입기: 전략적 상호 의존성하의 경쟁

- 오늘날 글로벌 기업간의 경쟁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 전략적 상호 의존성하의 경쟁(Competing under Strategic Interdependence)이 심화
 - 전략적 상호 의존성하의 경쟁이란 특정 시장에서의 전략적 행동이 그 시장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다른 시장에서도 경쟁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함
 - 즉, 경쟁 관계로 인해 한 기업의 전략은 단순히 자사 제품 및 직접적인 대상 시장만을 목표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대응 및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함

- 북미 시장 공략으로 위장하여 동유럽 시장 경쟁에서 성공을 거둔 필립 모리스(Phillip Morris)가 좋은 사례임
 - 미국의 담배 제조회사인 필립 모리스는 미국시장에서 말보로(Marlboro) 등 고급 담배의 가격을 20% 인하하였으며, 더불어 미국 내 광고 예산을 증가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내림
 - 이에 따라 가장 큰 경쟁사인 알제이 레이놀즈(R.J. Reynolds) 또한 즉각적으로 자사의 고급 브랜드인 카멜(Camel)과 윈스턴(Winston)의 가격을 인하하고 더 많은 광고 예산을 집행하며 맞대응함
 - 필립 모리스가 가격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 제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제이 레이놀즈로 하여금 미국 시장의 방어를 위해 현금 재원을 고갈시켜 동유럽 시장에서의 지배력 약화를 노린 고도의 전략 때문이었음
 - 미국내 시장점유율 방어에 너무 많은 자본을 소진해버린 알제이 레이놀즈는 결국 동유럽 시장에서 힘을 잃게 되었고, 결국 필립 모리스는 동유럽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음

- (시사점) 자신의 처지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상황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필립 모리스가 거둔 승리는 재정적 수치의 우위뿐만이 아니라 경쟁사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전략적 목표의 설정에 기인

□ 日, 강경 우익 개각

- (보수 우파의 약진) 고이즈미 준이치로 日총리가 31일 실시한 집권 후반기 내각 개편에서 ‘일본의 네오콘’에 비유되는 인물들을 전진 배치함
 - 정권 2인자 격인 관방장관(우리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 대리가 발탁되고, 한국·중국 등 인접국 외교와 맞물려 관심을 끈 외상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무상이 임명됨
 -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정치 명문가 출신(외조부가 기시 노부스케 前총리, 부친이 아베 신타로 前외상)으로서 ‘집권 자민당의 황태자’로 불리며,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 군비 확충 등 일본 정계의 우경화를 주도해 온 인물. ‘포스트 고이즈미’의 선두주자임
 - 아소 다로 외상 또한 정치 명문가 출신(외조부가 요시다 시게루 前총리, 장인이 스즈키 젠코 前총리)으로서, 부친은 일제때 규슈에서 1만여 명의 조선인 징용자를 끌고가 노역시킨 아소탄광을 경영한 바 있음
 - 아베 신임장관은 “누가 총리가 되든 8월 15일에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소 외상은 일제가 강제하던 창씨 개명에 대해 “조선인들이 ‘일본의 성씨를 달라’고 한 것이 시발이었다”는 망발을 한 인물임
- (아시아 외교 강경 노선 고수) 아소-아베 체제를 통해 내년 9월까지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아시아 국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경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 즉 고이즈미 총리는 기존의 미국 중시 외교를 계속하면서 아시아 국가와의 마찰은 감수하겠다는 것임(아소와 아베 두 사람은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친미 인사)
 -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한국·중국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옴
 - 특히 일본의 극우 보수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또다른 패권주의를 지향하게 할 것이고, 동북아는 중-일의 대결장이 될 가능성이 큼
- (정부 개혁 속도)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전도사로 꼽히는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재정·우정민영화 담당상이 총무상에 기용, 정부 개혁 가속화가 기대됨
 - 우정 민영화 이후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히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과 정원 감축 등 일본의 정부 부문 개혁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인 남아선호도 세계 5위

■ 우리 나라의 남아선호 현상이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여아(女兒) 100명당 남아(男兒) 출생 비율이 한국은 108.7명(2003년 기준)으로 조사 대상국 45개 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함
- 아시아 북서부의 그루지아(118.3명), 아제르바이잔(117.2명), 대만(110.1명), 홍콩(109.1명) 등 아시아 대륙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
-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대체로 105명선 안팎임(독일 105.8, 네덜란드 105.5, 호주 105.1, 뉴질랜드 104.3, 핀란드 105.8, 스위스 105.1)

■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 선택적 임신도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출생 순위별 성비는 첫째 아이가 여아 100명당 남아 104.9명, 둘째 아이는 107.0명, 셋째 아이는 136.6명으로 급격히 상승(2003년)
- 이는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낙태 등으로 아이를 선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디자이너 갭(Desire Gap)

■ 하고자 하는 ‘의도’와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행동)’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러한 갭이 클수록 인간의 좌절감도 커짐

- 즉 요리책을 사거나 요리 프로를 보거나 화려한 프랑스제 요리 도구를 사는 데 돈을 투자하지만, 정작 음식을 준비하거나 실제로 요리하는 일은 드뭄
-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바닷물만큼이나 많은 양의 다이어트 음료수를 마시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비만에 시달리고 있음
- 어린 소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미(美)의 영상들에 둘러싸여 있고, 식사 장애가 유행병처럼 번짐

■ 이러한 ‘디자이너 갭’에 의해 유발되는 좌절감은 실제로 현대 문화 속에 뿌리깊게 존재하며, 소비자 경제의 달성할 수 없는 동경들은 결국 정신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정서적 황폐를 가져오게 됨

- 이것은 우울증, 정신적 불만, 폭력으로 표출됨

□ 지역주의 확산과 아시아 공동통화 도입 전망*

- (지역주의 확산과 아시아지역 단일통화 도입 논의) 21세기 들어 지역주의는 유럽경제권과 미주경제권, 아시아경제권의 3대 광역경제권 체제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며, 아시아지역 공동체 논의 또한 ACU(아큐, Asian Currency Unit, 아시아 공동 통화 단위) 도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함
 - (아시아지역 단일통화 논의 진전) 외환위기의 재발 방지와 달러화 약세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단일통화 논의가 진행됨
 - 韓中日 단일통화 협의 진전 :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지역에서는 엔화와 위안화보다 단일통화 도입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인식하에 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협상이 진행 중임
 - ACU 도입 논의 :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아시아 공동통화단위인 ACU는 한국, 중국, 일본과 ASEAN 10개국 등 13개국의 평균 통화 가치로 결정될 것임
 - (ACU 도입 영향 및 전망) 향후 달러화, 유로화, 아시아 단일통화의 3극 통화체제가 도입될 경우 환율제는 목표환율대(Target Zone)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세계 단일통화 창출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목표환율대 도입 : 예를 들어 유럽경제권과 미주경제권간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 '1유로=1달러'의 중심환율과 상하 10%의 변동폭을 설정할 경우 달러/유로 환율이 0.9~1.1달러 내에서만 변동하게 됨
 - 세계 단일통화 창출 가능성 : 목표환율대 도입과 변동폭 설정에 의해 3극 통화간의 가치가 일정 범위로 수렴될 경우 세계 단일통화 창출도 가능해질 것임
- (세계 단일통화 논의 진전) 이런 시각에서 보면 벨기에 루뱅大의 리태어 교수가 창안한 테라(Terra, 지구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용되는 통화를 의미), 글로벌 유로화(유로화의 범세계 통용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달러의 세계 각국 기축 통화화)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

* 이 글은 『한경비즈니스』(2005.11.07)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 버릴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명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로 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 팔, 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시오고 감히 청할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 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해주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 지는 건 어쩔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작자 미상의 글)

“ 겸손한 자만이 다스릴 것이요, 애써 일하는 자만이 가질 것이다.”

-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1803-1882) 美 사상가, 시인